



박상균 저, 『도서관학만 아는 사람은 도서관학도 모른다』



배현숙 *

지난 연말에 박상균 저작의 『도서관학만 아는 사람은 도서관학도 모른다』란 도서관학사상 관계 서적이 한

국디지털도서관포럼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최근 도서관학 사상사 연구의 깊이와 넓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저서이다. 저자는 도서관학 사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1991년에 『세계도서관학사상사』를 간행하였고, 1993년에는 한국근대도서관학사상사연구를 편집시켜 증보판을 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토대로 수정하고, 카네기(Andrew Carnegie)와 윌리엄슨(C. C. Williamson), 랑가나단(S. R. Ranganathan), 유향(劉尙)과 유희(劉猷) 부자, 마에마 교오사쿠(前間恭作), 대각국사 의천(義天), 꾸랑(Maurice Courant), 박봉석(朴奉石), 박병선(朴炳善), 엄대섭(嚴大燮)을 증보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도서관학 사상사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양위주로 연구하고 있음에 비해 이 책에는 동양의 도서관학 사상사도 개괄한 것이 큰 특징이다.

저자는 평소에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격적인 요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

다는데, 그런 이유에서 영국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의 말에 도서관학을 대입시켜 서명을 붙였다. 서명은 다분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다.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빌린 것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가히 절구에 가까운 현장의 여러 제안과 주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 책은 도서관학사상사를 다룬 것인데, 서설,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서설에는 도서관학사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도서관문화 의식, 문헌정보학 교육의 목표와 발전방향 등을 논하였다. 저자는 중요한 정보는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한쪽에서는 쓰레기 정보가 범람하여 창조적 두뇌활동이 둔화되고, 소외계층이 불어나 미래의 바람직한 발전이 위협받고, 컴퓨터 범죄로 말미암아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대되며,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오락정보에 대한 홍수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해적의 천국이 되고, 개인생활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며, 시간과의 싸움으로 삶이 황폐화되어 우리의 삶이 척박한 시대라고 진단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황은 매우 열악하여 미국 의회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전보다 훨씬 작은 도시의 시립도서관인 일본의 우라야스도서관, 북한 인

* 계명문화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hspae1977@empal.com

민대학습당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을 파헤쳤다. 결과로 북한의 사회구조와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의 도서관 현상은 비판적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렇게 도서관이 발전하지 못한 배경에는 국회의원이 큰 몫을 했다.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예산에 대해 트집잡는 국회의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국회에서 도서관예산이 삭감된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의원들이 도서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회의원들이 도서관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저자는 본문에서 도서관학 사상가들을 재조명하여 선각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강한 집념과 도서관인으로서의 높은 정신적 자세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도서관학의 발전에 공헌한 노데(Gabriel Naude), 라이프니츠(G. W. Leibniz),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듀이(Melvil Dewey), 카네기와 윌리엄슨, 랑가나단, 유향과 유희 부자, 후쿠자와 유키찌(福澤諭吉)와 다나카 후지마로(田中不二麿呂), 마에마 교오사쿠, 꾸랑, 대각국사 의천, 유길준(兪吉潁), 윤익선(尹益善)과 이범승(李範昇), 박봉석, 박병선, 엄대섭 등 대표적인 20인의 활동을 논하였다.

프랑스의 가브리엘 노데는 도서관의 보편주의를 제창하여 공개도서관제도를 실현하고 근대도서관학사상을 수립하였음을 밝혔다. 노데의 보편주의를 계승한 독일의 철학자, 언어학자, 도서관학자였던 라이프니츠가 세계의 정보를 천재적 두뇌로 정리하고 보편학으로 정립시킨 공적을 논하였다. 17-18세기에 지식의 만인공유사상이 민중들 사이에 파급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공헌이었음을 밝혔다.

유럽대륙에서 배양된 도서관의 보편주의는 미대륙에서 꽃을 피워 공공도서관의 황금기를 맞게 된다. 그 토양이 된 활동과 사상은 회원도서관 설립운동을 전개하여 미국 공공도서관의 아버지가 된 벤자민 프랭클린의 도서관사상인 것이다. 이어 미국 도서관학의 창시자인 멜빌 듀이의 도서관사상과 그의 분류표 편성, 도서관학교 창설, 여성사서를 위한 투쟁에 대해 논하였다. 듀이는 컬럼비아대학에 도서관학교를 창설한 후 여학생을 입학시킨 문제로 대학당국과 충돌하여 사임하면서도 여성사서를 옹호하였다. 그러므로 오늘의 여성사서들은 듀이의 공로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다. 듀이의 노력으로 뿌리내린 미국의 도서관학은 카네기와 윌리엄슨의 노력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한다. 카네기는 프랭클린이 조성한 공공도서관의 싹을 키워 황금기를 이루게 하고, 도서관학교 교육을 기술훈련단계에서 학문적 단계로 끌어올리도록 지원한 인물이다. 카네기를 도와 도서관활동추진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 사람이 윌리엄슨이다. 이어 윌리엄슨의 도서관학사상과 그 보고서의 영향을 다루었다.

동양인으로는 20세기 초 인도인 랑가나단의 도서관학사상을 먼저 다루었다. 그는 동양 최초의 근대도서관학 학자이다. 20세기 초 실용주의적인 듀이 도서관학에 대한 비판이 팽배한 가운데 발간된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이 도서관학의 총론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음을 논하였다. 이어 중국 목록학의 창시자인 유향 부자의 목록학사상을 다루었다. 유향 부자는 기원전 1세기말까지의 학술의 발전을 기술하고 당시 서적을 정리하여 서지를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양에 있어 도서관학의 기원이 된다. 일본은 명치년간 근대도서관운동의 선각자인 후쿠자와 유키찌와 다나카 후지마로를 다루었다. 후쿠자와가 편찬한 『서양사정(西洋事情)』은

명치 초 일본에 서양의 근대도서관학사상을 보급하고, 근대 도서관이 설립되는 계기가 된 책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다나카는 이들 도서관을 연계하여 전국도서관망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일본에서의 초기 도서관의 설립운동이었음을 논급하였다.

끝 부분에 우리나라를 배정하였다. 먼저 외국인으로 구한말에 우리나라 서지의 편찬에 큰 업적을 남긴 일본의 마에마 교오사쿠와 프랑스의 모리스 꾸랑을 논하였다. 마에마 교오사쿠는 일본인으로 『고선책보(古鮮冊譜)』와 『조선의 판본(朝鮮의板本)』 등의 한국전적해제를 편찬한 바 그가 한국서적에 바친 애정과 그로 인한 교훈을 논하였다. 모리스 꾸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서적과 문화를 최초로 서양에 소개한 『조선서지(朝鮮書誌)』와 그 문화사적 의의를 논하였다. 더구나 이 『朝鮮書誌』에서 『직지(直指)』를 가장 먼저 소개하였음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지학과 도서관의 발전에 공헌한 우리나라 선조들을 논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서지를 편찬한 대각국사 의천을 논하였다. 대각국사는 교장(敎藏)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하였고, 교장과 그 목록을 편성한 점에서 위대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후쿠자와인 유길준은 『서유견문(西遊見聞)』을 발간하여 우리나라에 개화사상을 보급하였고, 또한 서양의 도서관을 소개하여 근대도서관의 설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으로 윤익선과 이범승은 황야에 도서관의 등불을 밝혀 공공도서관의 아버지라 칭해진다. 그들은 치욕시대에 경성도서관 설립을 주도하여 구국운동을 하였고, 광복 후 종로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한국의 멜빌 듀이라 칭해지는 박봉석의 도서관학 개척의 업적을 논하였다. 『直指』를 세계에 알린 프랑스 거주 박병선의 노력과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의궤의 발

굴과 해제를 다루었다. 개척정신으로 마을문고 운동을 전개한 엄대섭의 사상을 논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상가, 학자, 도서관인의 노력으로 도서관은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이론과는 달리 아직도 공부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결론에서는 현장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하나가 문헌정보학교육에서 도서관학사상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이는 도서관학사상의 뒷받침이 없이는 정상적인 도서관과 도서관학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절구한 것이다. 그 근거로 1792년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인물의 한사람이었던 콩도르세(Marie Condorcet)가 '정규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도서관을 통해 자기 교육을 해야' 한다고 혁명국민의회에서 역설하여 동마다 도서관을 건설하고 기금을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을 들었다. 이는 지식의 만인공용 사상을 실행에 옮긴 혁명국민회의의 위대한 도서관학사상이었다. 다음으로 명치유신 때 도야마 마사가스(外山正一)가 제국의회에 『제국도서관 설립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외국도서관의 사정을 설명하고 세계는 지식의 경쟁시대임을 역설하여 제국도서관을 설립한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프랑스 혁명국민회의의 콩도르세와 같은 강력한 도서관 의지가 있는 의원을 볼 수 없고, 일본 명치시대의 도야마 마사가스 같은 도서관 정신을 펼친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의원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지식의 보고로서 도서관을 인식하게 하는데는 도서관학자들의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문헌정보학의 교육은 기술제일주의로 치닫고 있어서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미국연구도서관협회의 모든 회원도서관이 전산화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지만, 저마다 거


대한 규모의 책과 잡지 중심의 장서를 유지하고 있고, 더 많은 종이책과 잡지를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이 없는 디지털도서관 구축에만 골몰하고, 그를 위해 정보전문가 양성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헌정보학 교육에도 비판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있어 고전적 학풍은 시들해지고 듀이 시대의 학풍에다 정보학을 접목시켜 과학으로서의 학문보다는 전시를 위한 학문의 흐름이 지배적이며, 물역사적(沒歷史的)인 기술맹신주의에만 매몰된 지금과 같은 정보화의 학풍에서는 정보전문가도 전문사서의 배출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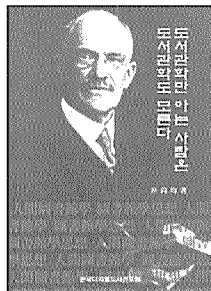
더구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는커녕 인터넷에는 표절하고 짜깁기한 정보가 난무하고 이를 다시 활용하는 현실임에라. 이로서 기본적인 현대 장서를 분류하고, 편목하여 입력하는 것만이 사서의 주된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서관학만 아는 사람은 도서관학도 모른다』는 서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어떤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학문만 알아서는 진정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주제분야에 대한 인접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학을 알려면 각국의 어학, 어학사, 도서관사상사, 비교분류학, 서양서지학, 동양서지학, 역사, 고서, 고문서학, 기록보존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철학, 사회학, 행정학, 예술, 컴퓨터과학 등도 두루 알아야 한다. 그만큼 학문적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 점에 있어 현재의 서양서지학에는 전혀 전문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 책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용을 신속히 찾을 수 있는 방도로 색인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 도서관원은 도서관인으로, 속장은 교장으로, 수사는 석사로 통

일했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내용에 있어서도 반고(班固)가 『별록(別錄)』과 『칠략(七略)』을 복원했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直指』는 200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도서관학자들이 역사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고 비판한 바의 미국의 도서관학을 수입하여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는 점이 많아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그 치유방안으로 저자는 도서관의 혼과 정신이 빠진 기술제일주의로 치닫고 있어 미래의 도서관이 보이지 않는 오늘과 같이 물역사적 기술맹신주의의 현실을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 인간교육으로 회귀하여 인간의 정서, 도덕, 창의력, 예술적 감각 등 고등정신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교육으로 회귀한 체계적인 인간도서관학(Humanist Library Science)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도서관인이 마땅히 경청해야 할 고견이지 않을 수 없다.

서지학계에서는 주로 서지, 활자, 목판 등 인쇄술과 인쇄본에만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학술지원기관에서도 이들 분야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도서관학사상에 평생 매달려 사신 노교수의 절규는 도서관학사상사와 도서관학 연구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박상균 저 / 한국디지털도서관 포럼 발행 / 2004년 10월〉